



18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18 대한축구협회 어워즈에서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한 김학범 감독,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황의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학범 감독, 올해의 지도자상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 지원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입에서 금메달을 지휘한 김학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 감독은 18일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축구협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은 후 "상을 받은 순간에 아시안게임에서 고생했던 선수들이 생각

났다.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와 성과가 나와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나와) 선수들이 함께 해낸 것이 중요하다. 모든 부분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선수들과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특유의 특신 있는 결단력과 지도력으로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의 2연패를 이끌

었다.

이제 김 감독은 U-23 대표팀을 이끌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겨냥하고 있다. 내년 3월 올림픽 1차 예선을 겸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48명의 후보군을 선정해 지난 10일부터 울산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갖고 있다.

김 감독은 "이제 첫 걸음을 시작했다.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박찬호, 역대 최악의 FA 계약 11위"

박찬호(45)가 메이저리그 역대 최악의 FA 계약 선수라는 혹평을 받았다.

미국 스포츠매체 '스포팅뉴스'는 19일(한국시간) '역대 최악의 FA 계약 랭킹'을 선정했다. 박찬호는 1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매체는 "당시 박찬호가 FA 금액의 압박감, 환경의 변화, 타자 친화적인 홈 구장, 부상 등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텍사스에서 4년 간 88차례 등판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이적하기 전까지 평균자책점 5.79를 기록

했다"고 전했다.

LA 다저스에서 에이스로 활약한 박찬호는 5년 6500만달러의 거액을 받고 텍사스 유니폼을 입었다. 당시 시장규모에서 6500만달러는 대형 계약이다.

그러나 박찬호는 첫 해부터 이 상징후를 보였다. 2002년 9승을 올리는 데 그쳤고 2003, 2004년 각각 1승 4승을 기록했다. 야구선수로서 전성기가 지난 박찬호는 이후 여러 구단을 전전하다가 은퇴했다.

스포팅뉴스가 선정한 최악의



FA 계약 선수는 조시 해밀턴이다. 해밀턴은 LA 에인절스와 5년 1억 2500만달러에 계약한 후 참담한 결과를 보였다. 2위는 플로리다 로키스와 8년 1억2100만달러에 계약한 마이크 햄튼, 3위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5년 9500만달러에 계약한 파블로 산도발이다.

프로농구 문경은·이상민 감독, 성탄절에 3점슛 대결

연세대 1년 선후배 사이...현역 시절 스타플레이어

왕년의 농구 스타 문경은(47) 서울 SK 감독과 이상민(46) 서울 삼성 감독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3점슛 대결을 벌인다.

SK와 삼성은 19일 "오는 25일 크리스마스에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SK-삼성전에서 두 감독이 3점슛 대결을 펼친다"고 전했다.

연세대 1년 선후배인 문 감독과 이 감독은 현역 시절 '오빠부대'를 몰고 다닌 스타플레이어였다. 문 감독은 팀보수터, 이 감독은 '산소' 같은 남자 로 불렸다.

두 감독은 이날 경기 하프타임에서 3점슛 대결을 갖는다. 3점슛 라인



밖 세 곳에서 각 5차례 슛을 시도해 더 많은 득점을 올린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다. 각 지역의 마지막 공은 컬러가 들어가 2점으로 인정된다.

승리 감독을 예상한 팬 11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댓글 응원 이벤트도 진행한다.

나이지리아가 협찬하는 용품과 SK텔레콤 5년간 통신비 지원, LG V-40 휴대폰 등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대결은 시즌 세 번째 S-더비이기도 하다. S-더비는 두 팀 연고지인 서울(SEOUL)의 S, 삼성(SAMSUNG)과 SK의 S, Share(공유하다)의 S를 의미한다.

두 팀은 이번 시즌 S-더비에서 1점당 1만원씩 적립하기로 했다. 앞서 두 차례 S-더비에서 두 팀 감독은 266만원을 적립했다. 쌀 100kg를 구입해 승자인 문 감독이 지정한 '양지 바른 장애인 거주 시설'에 전달했다.

뉴스

황의조 "AG 생각하면 아직 소름...유럽 도전하고파"

"아시안컵 통해 더 좋은 선수로 성장 계기 되길"

2018년 한국 축구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황의조(26·갑자 오사기)는 자신의 운명을 비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떠올리면 여전히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황의조는 18일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2018 KFA 시상식에 참석해 남자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아시안게임은 황의조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었다. 와일드카드(23세 이상)로 선발될 땐만 해도 김

학범 감독과의 성남 시절 인연 탓에 '인맥축구'라는 비아냥에 시달렸지만 성적으로 자신을 향한 시선은 180도 바꿨다.

축구팬들은 아시안게임 7경기에서 9골을 쏘아 올리며 금메달의 일등공신이 된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꿈같다. 소름이 돋는다. 뜻 깊었던 대회였다.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대회였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황의조의 다음 목표는 다음달 아랍

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다. 4년째 트로피가 없는 한국은 이번 대회를 우승의 적기로 보고 있다.

황의조는 "아시안컵은 또 다른 성장이 될 것 같은 대회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성장했으니 아시안컵을 통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럽 진출을 두고는 "선수라면 당연히 욕심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서 선수들, 후배들과 같이 뛸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무너뜨린 손흥민의 골, 英BBC 선정 올해의 장면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독일을 무너뜨린 손흥민(토트넘)의 골이 영국 BBC 선정 올해의 장면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9일(한국시간) 손흥민이 독일과의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터뜨린 두 번째 골을 스포츠 올해의 장면 중 하나로 선정했다.

BBC는 '노이어는 어디에 갔을까'라며 손흥민의 골을 소개했다.

손흥민은 독일전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독일의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가 골문을 비운 틈을 타

썩어골을 터뜨렸다. 주세종(아산)의 통패스를 받아 폭발적인 돌파를 선보이며 빈 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었다.

이 장면은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골에도 이름을 올렸다.

BBC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림철 달력(24개의 숫자가 적힌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루에 하나씩 올해의 스포츠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남자 테니스 윌슨 준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5시간44분 혈투 끝에 라파엘 나달에 거둔 승리와 러시아월드컵 결승 등이 공개됐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경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원담 구례군은 지리산자연, 장세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북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